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민·관·군·경
‘2026년 민방위 계획’ 확정

정읍시가 지역 안보와 시민 안전을 위해 민·관·군·경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025년 4분기 정읍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겨울철 재난 대응 방안 논의와 함께 ‘2026년 민방위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각 기관 대표 및 위원들이 참석해 머리를 맞댔다. 참석자들은 지역의 안보와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방위협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가올 겨울철 폭설과 한파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비해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

회의의 핵심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 민방위 계획(안)’에 대해서는 재난안전과의 주요 내용 설명을 시작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민생안정지원금
등 소비쿠폰 사용 독려

부안군 부안읍(읍장 한동일)에서는 오는 11월 30일이면 민생안정지원금·민생회복 소비쿠폰(1차·2차) 사용 기한이 만료되어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생안정지원금과 민생회복 소비쿠폰(1·2차)이 전액 자동 소멸되므로 부안읍은 가한 내 서둘러 전액 사용 수 있도록 거듭 당부하고 있다.

지급률은 각각 민생안정지원금 98%,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99.6%), 2차(98%)를 높은 지급률 기록, 군민 생활 안정에 기여한 만큼 남은 잔액을 가한 내 사용함이 중요하다는 것.

특히 남은 잔액 확인은 민생안정지원금은 카드 앞면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조회 할 수 있으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쿠폰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부안사랑상품권 카드는 고창사랑페이 모바일 앱에서, 잔액을 조회 할 수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민 · 관이 함께 그리는 복지도시

정읍시, ‘정읍형 복지 모델’ 구축 박차…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 논의

정읍시가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26년도 복지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시는 25일 시청 구청초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열고, 5대 핵심 분야 46개 세부 사업을 담은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대표협의체 위원들과 각 세부 사업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자의 현장에서 얻은 다양한 사회복지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며 부서별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내년도 실행계획의 방향성을 다듬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관련 법률에 따

라 4년마다 수립하는 지자체 고유의 종합 계획이다.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교육, 문화, 환경, 주거 등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며,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

이번에 논의된 202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건강·돌봄 △민생경제 △생활환경 △보육·교육 △지역 안전망 등 5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추진 전략을 세우고 총 46개의 세부 사업을 확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망과 협력체계를 견고히 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

하고 사회보장급여 이용 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민관 협력 강화와 거버넌스 운영, 관련 인프라 확충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지원 기반 확대가 눈에 띈다. 시는 청소년 글로벌 인재 양성, 수상안전 교육, 교육협력지구 사업 등 교육·청소년 분야의 신규 사업을 계획에 포함해 미래세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적극적으로 경청해 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수, 제4회 람사르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

헝가리 타타시서 개최… 습지 보전 · 관리 과정 교류 · 향후 습지도시 협력 발전 방향 모색

고창군은 심덕섭 고창군수가 26일부터 3일간 헝가리 타타시에서 개최되는 ‘제4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회의는 동아시아람사르습지센터(센터장 서승오)와 헝가리 타타시가 공동 주관으로 올해 4회째 열린다. 람사르습지도시의 습지 보전과 관리 과정을 교류하고, 향후 습지도시의 협력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27개국 74개 습지도시 시장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다. 한국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립생태원 등의 부처 및 유관기관과 고창군 창녕군, 문경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막식, 타타시 습지 견학, 기조 발표, 주제 발표(헝가리 타타 습지도시 관리, 습지도시 평가 방안 등), 세션별 발표(습지도시 홍보 및 브랜딩, 습지 교육, 공공-민간 파트너십, 습지와 기후변화), 시장단 원탁 회의, 폐막식, 만찬 등이 진행된다.

심덕섭 군수는 27일 공공-민간 파트너십 세션에서 “주민이 행복하고 활

력 넘치는 고창 람사르습지”를 주제로 고창군민의 주민 주도형 습지 관리 사례를 발표하고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타타 시청에서 열리는 시장단 원탁회의를 통해 습지도시의 협력 방안과 람사르습지 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사항들을 의결할 예정이다.

고창군은 운곡 람사르습지와 고창갯벌 람사르습지를 2개소를 보유하고 습지 보전 정책의 우수성과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아 2022년 람사르습지 도시로 인증되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관광공사, ‘2025 정읍관광두레 성과공유회’ 개최

주민주도 관광생태계 조성 위한 사업체 육성 · 자원 연계 강화

정읍시가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주민이 직접 이끄는 관광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와 함께 ‘2025 정읍관광두레 성과공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일궜다.

이날 행사에는 지난 9월 법인 설립을 마친 △숙박과 체험 분야의 (유)다시 정읍 △체험과 기념품 판매 분야의 (유)미쁘한 여두소 △체험과 식음 분야의 알로에사랑농조조합법인 등 3개 주민사업체가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운영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향후 관광객 대상 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자원 연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의지를 다졌다.

시는 앞서 지난해 한국관광공사 주관하는 ‘2025 관광두레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주민주도 관광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1년 차 운영을 시작했다. 관광두레는 숙박, 식음, 체험, 여행 기념품 등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해 주민공동체가 직접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도록 돕는 사업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최대 5년간 약 1억 1000만원 이내의 지원과 함께 디자



인, 브랜딩, 홍보, 법률, 세무 컨설팅 등 맞춤형 육성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시는 공모 단계에서 3인 이상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역량과 콘텐츠 실현 가능성,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평가해 올해 주민사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중 · 장기 상위계획 재편 대비 선제 대응”

권익현 부안군수, 정책 정보 전달 강화 · 겨울철 산불예방 등도 당부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열린 연석회의에서 중·장기 국가·광역계획 재수립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과 정책 정보의 정확한 전달, 겨울철 산불 예방 강화 등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2026~2027년 전후로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 ‘제8차 전국권 관광개발계획’ 등 주요 상위계획이 순차적으로 재편될 예정”이라며, 부안군의 미래 전략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을 당부했다.

이어 “각 부서는 관련 분야의 계획 재수립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상위 계획에 제안할 핵심과제를 적극 발굴해 달라”며 “계획수립 부서와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우리 군의 핵심 과제가 상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권 군수는 정책 정보의 정확한 전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온라인·SNS 환경에서 정보 확산이 빠른 만큼, 정책 취지나 사업 목적이 잘못 전달될 경우 군민 오해와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서는 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효과를 정확히 숙지하고 설명자료를 사전에 정비해, 군민에게 전달되는 정책 정보가 명확하고 일관되게 안내되도록 철저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겨울철 산불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임을 언급하며 예방 활동 강화를 주문했다. 권 군수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국회 기후위기 정책 토론회 참석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난 24일 여의도에서 개최된 국가와 지방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현 기후위기 대응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부안군에서 추진 중인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기후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는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와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 협의회가 공동주최한 행사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여 기후분권 정책을 논의하고,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기후위기 특별

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 단체장들이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과제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특히 부안군은 기후위기 대응 우수 시책으로 추진 중인 “서해바다 바다단풍 블루카본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고, 줄포만 갯벌에 염생식물 군락지를 조성하여 해양 생태계의 탄소 흡수력 강화와 생태복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및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새만금 7공구 산업용지 전환 MP 반영” 강력 요청

부안군의회, 새만금개발청 방문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지난 24일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을 방문해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18km)의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기반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반드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25일 첫 면담 이후 이루어진 재방문으로, 부안군의회는 당시 건의한 주요 현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새만금개발청을 다시 찾았다.

특히 이번에는 7공구 산업용지 전환과 RE100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MP 반영을 집중적으로 건의했다.

부안군의회는 “기업 입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산업용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부안은 서남권 해상풍



력(2.46GW)과 그린수소 등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기반 국가산업단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새만금 개발 34년간 실질적 개발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부안군의 균형발전과 지역보상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박병래 의장은 “부안은 새만금사업의 가장 큰 희생자였다. 이제는 희생이 아니라 결과가 있어야 한다”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